

홍의식의 진해에서의 항일독립운동

【결정사안】

홍의식이 진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대문형무소와 마산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신문자료 및 수형인명부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신청인의 주장과 각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인 홍의식(洪懿植)과, 호적등본과 국가보훈처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형인명부의 홍이식(洪彝植)과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수형인명부와 호적상에 홍이식은 생년월일이 1893년 5월 3일, 주소는 경남 창원군 진해군 경화동 74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임시총회 때 검거자 명단에 있는 홍의식의 주소는 경남 창원군 진해면 경화리, 연령은 32세로 되어 있다. 홍이식이 1893년생이므로 홍의식이 1924년에 32세라면 같은 나이로 볼 수 있고, 주소도 같으므로 동일인물로 판단되며, 진해시청 호적계에 문의한 결과, 1893년을 전후한 시기에 경화(리) 출신으로는 홍이식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볼 때 호적상으로는 홍이식이지만 홍의식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2. 홍의식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검거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1924년 4월 20일 경성에서 열린 조선노동총동맹임시총회에서 백광흠, 박흥곤, 한해, 안준, 정운해 등과 종로 경찰서에 검거되어, 5월 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그리고 1926년 3월 진해예배당 습격사건으로 검거되었으나 집행유예된 기록이 있으며, 1926년 6월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요예배설교방해행위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형에 처해진 사실이 기록된 수형인명부가 있다.

3. 홍의식이 일제강점기 전 시기에 걸쳐 진해에서 다방면에 걸쳐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1923년 진해청년회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비롯하여, 1928년 조선인 노동자상해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진해청년회에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시기에 진해소작회 활동을 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진해지역 농민들이 소



작료 이중부담 등의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기 위해 1923년 6월 진해소작회를 결성하는데, 홍의식은 창립당시부터 참가하였고 경남노농운동자 간친회, 조선노농총동맹 등에 진해소작회 대표로 참석하는 것으로 볼 때 홍의식이 진해소작회 대표로 주요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1927년 10월 신간회 창원군 지회의 창립대회 개최 시, 홍의식은 선전부임원에 선출된다. 신간회 창원지회 설립당시부터 참여한 홍의식은 1931년 제4회 정기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다. 1928년 창원신간지회가 주최한 전(全)창원사회운동자망년대회에서는 「하구(下龜)야학교정세」에 대해 보고한 적이 있어 야학교 활동도 병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32년 진해장학회 활동을 하고 있고, 1939년 조선어과목폐지에 항거하는 진해 제3소학교 부형회 평의원으로 선출된다.

【전 문】

【사 건】 가-4931 홍의식의 진해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신청인】 홍기원

【결정일】 2007. 11. 27.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신청인 홍기원은 조부 홍의식이 진해에서 독립운동을 하였고 서대문구치소와 마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지만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II. 진실규명 과제

1. 진실규명대상자 홍의식과 수형인명부 등의 홍의식의 동일인 여부
2. 홍의식의 수형사실 여부

3. 홍의식의 항일독립운동 여부

Ⅲ.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진실규명의 범위 중 하나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되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조사 결과, 홍의식이 진해에서 청년회·소작회·신간회·장학회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고, 1926년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요예배설교방해행기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처해진 기록 등의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보다 자세한 조사를 위해 2007년 1월 9일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Ⅳ. 조사방법 및 경과

본 사건의 조사는 선행연구검토, 문헌자료, 신문기사, 관련 기관의 자료 및 각 대학 도서관 자료 검색을 비롯, 조사관의 방문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진해지역의 항일독립운동사』, 『일본의 한국침략사료총서』 등 홍의식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진해지역의 항일독립운동사』의 저자이자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사료수집위원인 황정덕(1927년생)¹⁾을 통해 진해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및 홍의식의 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신청인 홍기원과 홍의식의 딸 홍순희(1930년생), 손녀 홍기남(1943년생) 과의 면담 및 통화를 통해 홍의식이 마산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다는 것과 해방 후의 활동 등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Ⅴ. 조사결과

1. 진실규명대상자 홍의식과 수형인명부 등의 홍의식의 동일인 여부

1) 진해 웅천향토문화연구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진해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채록했다. 저서로는 『진해지역의 항일독립운동사』 외에도 『鎭海市史』, 『진해의 민속』, 『이야기 진해사』 등이 있다.

신청인의 주장과 각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은 홍의식(洪懿植)이나, 호적등본과 국가보훈처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홍의식이 아닌 홍이식(洪彝植)이어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수형인명부와 호적상에 홍이식은 생년월일이 1893년 5월 3일이고, 주소는 경남 창원군 진해군 경화동 74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에 의하면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불리던 이름이 홍의식이며, 족보에도 홍의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족보의 생년월일도 1893년 5월 3일로 같다. 그리고 1924년 4월 조선노동총동맹임시총회 때 검거자 명단에 있는 홍의식의 주소가 경남 창원군 진해면 경화리이고 연령은 32세로 되어 있다. 홍이식이 1893년생이므로 홍의식이 1924년에 32세라면 같은 나이로 볼 수 있고 주소도 같다. 또한 진해시청 호적계에 문의한 결과, 1893년을 전후한 시기에 경화(리) 출신으로는 홍이식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볼 때 호적상으로는 홍이식이지만 홍의식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2. 홍의식의 수형사실 여부

판결문 등 수형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재판기록은 없지만, 홍의식이 항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검거되었다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가. 1924년 4월 24일 개최된 조선노동총동맹임시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상황을 「소화(昭和)15년 전반기 조선사상운동개황」²⁾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현재도하에서 민족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동아일보계의 운동을 배척하고 국민 협회 및 각과 유지연맹(有志聯盟)의 내선융화 내지 공산주의에 대한 반동운동을 근저에서 파괴하고자 불온과격한 언동으로 인해 오후 6시 보안법 제2조규정에 의해 임감(臨監) 경찰관이 집회를 금지하고 해산을 명함에 따라 군중 약 2백 명은 장외(場外)로 나가 대오(隊伍)를 지어 노동가를 부르거나, 동아일보사를 습격하여 불태워라 라고 외치며 행진하자 관할 종로경찰서에서는 즉시 이를 저지하고 주모자로 인정되는 좌기(左記) 강태윤 외 19명을 검속하고 군중을 해산시켰다.

이때 홍의식을 비롯하여³⁾ 백광흠, 박흥곤, 한해, 안준 등이 검거되었다. 이 임시총회에

2) 일본 외무성, 육군성, 해군성 공편, 『일본의 한국침략사료총서 31』, 한국출판문화원, 1990, 210쪽.

3) 『시대일보』(1924.5.7.)에는 노동총동맹의 간부가 검거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서는 노동, 농민문제에 대한 장시간의 토의가 있는 후 노동문제, 소작문제, 동척이민(東拓移民) 문제와 기타 문제 등에 대해 결의를 하고, 김종범이 등단하여 「반동세력 및 방해자에 관한 건」에 관해 각파 유지연맹(有志聯盟)을 들어 동아일보 비매동맹을 제안하였다.⁴⁾ 조선인 지주와 귀족들로 구성된 친일단체인 각파 유지연맹을 박멸하자고 주장하고, 1924년 1월 동아일보에 실린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民族的經綸)」이란 논설의 '현재에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라도'라는 문구의 의미가 조선의 완전독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치(自治)라도 허용하자는 뜻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총동맹에서 동아일보 배척 및 비매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경고비(京高秘) 제5632호⁵⁾의 별지에 조선노동총동맹의 일반적 경과가 나와 있어 당시 검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총동맹 창립일인 1924년 4월 24일, 대회에 출석하려고 온 대의원 및 방청자 등이 종로경찰서에 검거되었고, 당시 검거된 인물과 석방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 검거자 명단

조찬규, 박태선, 강대희, 이정수, 송금상, 안준, 홍의식, 조동혁, 서재국, 김영휘, 서정희, 이현, 박이규, 송내호, 최안섭, 정남국, 최형천, 강태원, 정학원, 박승억, 한해, 정운해, 박흥곤, 남윤구, 백광흠.

• 석방경과

- 〈1924.5.3〉: 본 동맹창립일에 검거된 조찬규, 박태선, 이정수 군 등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 〈1924.5.5〉: 또 안준, 홍의식, 조동혁, 강대희, 송금상, 서재국 등 6인이 석방되었다.
- 〈1924.5.7〉: 또 김영휘, 서정희, 이현, 박이규, 송내호, 최안섭 군 등이 석방되었다.
- 〈1924.5.8〉: 장채극, 정남국, 최형천, 강태원, 정학원, 박승억 군 등 6인이 석방되었다.

홍의식이 4월 24일 검거되어 5월 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는 것으로 봐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나. 1926년 진해예배당 습격사건으로 홍의식(洪懿植)은 집행유예를, 김종건(金鍾健),

4) 『동아일보』, 1924.4.22. 「노동임시대회」.

5) 1925.11.25. 「조선노동총동맹 제6회 중앙집행위원 간담회에 관한 건」.

6) 『시대일보』, 1924.5.7. 「노동간부사건 6명 불기소」, 『조선일보』, 1924.5.12. 「五氏도 放免 노동총동맹때에 검속되었던 이십육인 이제는 전부다 나왔다」에서도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다.

문찬두(文欽斗), 고을룡(高乙龍)⁷⁾, 강대홍(姜大洪) 등이 징역 6월을 선고받는다.⁸⁾ 이 예 배당 습격사건은 1926년 3월 초 노동회 총회를 마친 회원 23명이 교회로 몰려간 사건인데, 신문기사에 의하면 교회에는 이미 경찰이 다수 출동해 있던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동자 중의 한 명인 문찬두는 그 이전에도 ‘단결하여 강자(强者)에 대항하자’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류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⁹⁾ 문찬두 뿐만 아니라 이때 검거된 김종건, 우을룡 등은 진해지역의 여러 운동을 주도하던 인물이어서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으리라고 보인다.

다. 홍의식의 수형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으로, 1926년 6월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요예배설교방해행위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형에 처해졌다는 수형인명부가 있다.¹⁰⁾ 이로 보아 홍의식이 마산형무소에 수감되었을 가능성¹¹⁾이 있으며, 판결문 등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종로경찰서에서 체포,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3. 홍의식의 항일독립운동 여부

홍의식은 1922년 동아일보 진해분국의 총무 겸 기자로 임용¹²⁾되며, 1923년부터 청년회 활동, 소작회 활동, 신간회 활동 등 진해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했음을 당시 신문기사 등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소화(昭和) 15년 전반기 조선사상운동개황」¹³⁾의 「민족주의자의 주요 언동」에 홍

7) 우을룡(禹乙龍)의 오기.

8) 『조선일보』, 1926.6.5 「진해예배당 습격사건공판」.

9) 『시대일보』, 1926.5.8 「진해 반기독(反基督) 공판」. 이에 의하면 이 사건은 3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0) 이와 관련된 판결문 등 재판기록은 국가기록원에 의뢰했으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2007.1.17), 그 구체적인 발생이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11) 홍의식의 딸 홍순희(78세)에 의하면, 오빠(홍남기, 1915년생)가 9~10세쯤에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솜옷을 가지고 마산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아버지 면회를 간 적이 있었다고 하며, 홍의식의 손녀 홍기남(홍의식의 장남 홍남기의 딸) 역시 같은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아 마산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홍기남은 아버지가 당시 마산형무소에 면회갔을 때 있었던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아버지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으며, 할아버지와 같이 살아서 비교적 많은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한다(참고인 진술 내용 참조).

12) 『동아일보』, 1922. 8. 23.

13) 일본의무성, 육군성, 해군성 공판, 『일본의 한국침략사료총서 31』, 한국출판문화원, 1990.

의식이 창씨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 반도민(半島民)이 선조로부터 계승해 온 성(姓)을 당국의 정책이라고해서 쉽게 창씨(創氏)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하면 비국민 취급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찬성을 표하는 것이다.

발언 내용 자체보다 1940년 「민족주의자의 주요 언동」으로 다루어질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¹⁴⁾

이러한 홍의식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진해청년회 활동

진해청년회는 1915년 진해청년단으로 창립하여 1919년 진해구락부로, 1924년에 진해청년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진해청년회는 명동(名洞), 덕산(德山), 이동(泥洞), 석동(石洞), 경화동(慶和洞) 등지에서 노동야학을 하고, 1926년부터 간이 도서관을 설치, 서적을 구입하여 일반에게 읽히게¹⁵⁾ 등의 활동을 하였다.

홍의식은 1923년 4월 22일 진해청년회 위원으로 선출¹⁶⁾ 되었고, 1928년 진해청년회에서 「해군 탱크 조선인 노동자 피상(被傷) 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구성된 조사단에 황금찬, 김태수, 황상석, 박상목 등과 함께 선정되었다.¹⁷⁾

이로 볼 때 홍의식은 당시 진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종건, 문찬두 등과 함께 청년회 활동을 했으며, 소작회 활동과 청년회 활동 시기가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진해소작회 활동

진해면의 토지는 토지조사령 이전 이미 일제의 해군용지로 점탈되어 있었는데, 모두 군사시설에 흡수된 것은 아니고 신고하지 않은 땅을 지주가 없는 땅이라고 간주하여 남은 땅이 많았다고 한다. 일본 해군성에서는 그 남은 땅을 경작하도록 대여하면서 일본인에게만 특혜를 주었고, 이런 토지를 대차하게 된 일본인들은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어

14)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민족주의자의 주요 언동」의 다음 항목으로 「사상전향자의 상황」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홍의식에 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이는 홍의식이 1940년까지 민족주의자로서 여러 운동에 참가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 『동아일보』, 1927.11.16. 「사회단체」.

16) 『조선일보』, 1923.4.30. 「진해청년회진행방법」.

17) 『중외일보』, 1928.2.26. 「鎮靑委員會 중대사항결의」.

한국 농민에게 전대 소작을 하였는데, 소작료를 명의상의 일본인 지주와 해군 당국에 이중으로 내게 해서 농민들에게는 이중부담이 되었다고 한다.¹⁸⁾

이러한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1923년 6월 18일 진해 소작회 창립총회가 열렸고 이때 문찬두가 임시의장으로, 홍의식은 위원으로 선출된다.¹⁹⁾ 그리고 1923년 10월 18일에는 임시총회를 개최, 임시상무(臨時常務)를 집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홍의식을 비롯하여 문찬두, 국정태, 김진석 등이 선출된다.²⁰⁾

이렇게 소작회를 창립하고 조직적으로 지주의 횡포에 맞서는 동시에, 자작하지 않는 일본인 지주와의 차별로 인해 여러 차례 소작쟁의가 발생하는데, 다음의 신문기사²¹⁾로 그 상황을 알 수 있다.

삼년동안의 긴 세월을 두고 해결되지 못하는 경남 진해 소작쟁의는 근일림농시를 당하여 문대가 더욱 분규하게 되어 일본인 디주회원(地主會員) 사이에 소작디쟁탈전이 이러나서 소항진해 경찰서압해는 매일 대소동을 이루는 중이었는데 그들은 모다 업무방해, 상해훼기(毀棄) 소작료차압물횡령, 봉인훼기죄의 형사피의자의 그들의 가족이었는데 금년 사월이래로 진해 경찰서에 접수된 소작쟁의의 고소장이 오십여건이요 그들 피고는 모다불일간 검사국으로 넘기리라한다.

이밖에도, “진해소작쟁의에 관하여 업무방해라는 죄명으로 오래 동안 수감하여 있던 진해소작조합간부 문찬두, 주병화외 수인에 대한 공판을 지나간 이십구일 부산 디방법원 마산지청에 열고”²²⁾, 『진해소작회 김씨의 판결언도』²³⁾, 『심심하니까 소작회간부 금속(禁贖), 소작인들과 군청에 동행할까봐, 신경과민한 진해경찰』²⁴⁾ 등의 기사를 통해서도 심각했던 당시 진해의 소작쟁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소작쟁의 과정에서 홍의식이 검거되거나 활동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18) 황정덕, 『진해지역의 항일독립운동사』, 금창출판사, 2004, 134~135쪽.

19) 『조선일보』, 1923.6.25. 「진해소작회 결의」.

20) 『조선일보』, 1923.10.23. 「진해소작임시총회」.

이때, 지주로부터 소작료 가차압(假差押)에 대한 기소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일본농민운동사 및 경성변호사회와 교섭하여 무료 변호사위임 건과 토지 조사령에 의해 국유지의 중간소작은 현 경작인의 명의로 교환을 당국에 신청할 것을 결의했다.

21) 「50여건의 쟁의고소 23만평 경지를 박탈! 분규가 험악해가는 진해쟁의 경찰서 압해는 날마다 큰 소동」, 『조선일보』, 1925. 5. 18.

22) 「진해소작쟁의사건의 판결, 피고는 모다 방면 후 벌금형」, 『동아일보』, 1924. 8. 6.

23) 「진해소작회 김씨의 판결언도」, 『시대일보』, 1925. 7. 13.

24) 「심심하니까 소작회 간부 금속, 소작인들과 군청에 동행할까봐, 신경과민한 진해경찰」, 『시대일보』, 1925. 11. 21.

다음과 같이 진해소작회 대표로 조선노동동맹에 여러 차례 참석하고 있으므로 진해소작회 활동의 중심에 홍의식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홍의식은 조선노동총동맹 등에 문찬두와 참석하며, 그 과정에서 검거되기도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경중경고비(京鍾警高秘) 제4260호의 5」
 - 조선노동대회에 진해소작회 대표로 홍의식이 문찬두와 함께 참석
 - 진해노동회 대표로 주병화와 우을룡도 참석
- 「경중경고비 제4409호의 3, 제4409호의 4」
 - 조선노동총동맹발기회에 진해소작회 대표로 홍의식이 문찬두와 출석
- 「경남노동운동자 간담회 및 남선노동동맹회 발기건」
 - 경남노동운동자 신년 간담회에 진해소작회 대표로 홍의식 참석
- 「경고비(京高秘) 제5632호」
 - 1924년 4월 20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조선노동총동맹에 출석하기 위해 온 대의원 및 방청자 조찬규, 박태선, 강대희, 홍의식 등 25명이 종로경찰서에 검거, 1924년 5월 5일 안준, 홍의식, 조동혁, 강대희, 송금상, 서재국 등 6인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

또한 「경중경고비 제906호의 5」²⁵⁾에 의하면, 조선노동대회 제1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상무위원 사무를 분장하고 서무부, 조사부, 선전부 3부로 구성되는데 진해소작회는 선전부에 선임된다. 또 4월 20일 열린 조선노동총동맹 창립대회의 50인 중앙위원회에 진해소작회의 문찬두가 포함되어 있으며, 창립대회를 마치고 오후에 열린 임시대회가 해산당한 후 중앙집행위를 개최하고 10인 상무위를 구성하는데 그 상무위원에 문찬두가 포함되어 있다.

이로 볼 때 홍의식은 1923년 및 1924년 진해소작회의 대표로 조선노동총동맹, 경남노동운동자 간담회 등에 참가하고 그 과정에서 검거되기도 하는 등 진해소작회의 대표로 문찬두 등과 함께 진해지역에서의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신간회 활동

신간회창원지회의 설립은, “경남 창원군 진해청년회에서는 신간회창원지회를 설립코저 만반의 준비를 하든 중 김종진, 주병화 외 수씨(數氏)의 노력으로 준비가 끝나서”²⁶⁾라는

25) 「조선노동대회 제1회 상무집행위원회 건」, 『동아일보』, 1924. 2. 2.

내용으로 볼 때, 진해청년회에서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회의 설립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그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의 지지와 후원 혹은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고무되거나 그 직접적 계기가 이루어졌다”²⁷⁾고 지적되듯, 진해에서도 만세운동 이후 기존의 청년회, 소작회 등에 참여하던 인물 즉, 홍의식, 주병화, 김종건, 황금찬 등이 신간회 설립을 주도했다고 여겨진다.

진해지역의 신간회 활동은 1927년 10월 20일 진해청년회관에서 창원군지회의 창립대회가 개최됨으로써 출발하게 되는데 홍의식은 선전부 임원에 선출된다.²⁸⁾ 이로 볼 때 홍의식은 신간회 창원지회 출발당시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1927년 12월 11일 열린 창원신간지회 정기총회에서도 선전부 상무로 선출²⁹⁾된다. 이 정기총회에는 개회 전부터 정·사북 경관의 엄중한 경계 속에 조선공산당공판 사건과 재만(在滿)동포 박해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금지당하기도 하지만 청년, 농민, 노동, 형평, 여성, 소년 운동 등과 같은 민중운동, 미신타파, 문맹퇴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결의하였다. 그리고 1928년 창원신간지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 창원분국 및 진해지국의 후원으로 개최한 전(全)창원사회운동자 망년대회에서 홍의식이 하구(下龜)야학교정세³⁰⁾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볼 때 야학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1929년 9월 제2회 간사회에서, 조직변경과 임원진 개선이 있었는데 이때 집행위원으로 홍의식, 황금찬, 홍우진, 주병택 등이 선출되었다. 또 1931년 진해 신간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홍의식은 조직 선전부 위원에 선출된다.³¹⁾ 또한 1931년 창원 신간지회는 홍의식의 사회로 제4회 정기대회를 개최했다는 다음과 같은 조선일보 기사가 실려 있다.³²⁾

경남 창원 신간지회에서는 지난 팔일 오후 1시에 제사회 정기대회를 경화동사(慶和洞舍)에서 홍의식 씨 사회하에 개최하고 회원점명급 경과보고가 있은후 립시집행부 선거에 들어가 립시의장에 홍의식 부의장에 김종건서기에 황금찬 등 제씨가 당선되야 의사를 진행할 새 신간운동의 정책수립급(及) 해소문제에 대하여 장시간 토의를 계속하다가 이 문제만은 급속

26) 「제1회 간사회 진해」, 『동아일보』, 1927. 10. 23.

27)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544쪽.

28) 『동아일보』, 1927.10.23. 여기서 회장 주병화, 부회장 김창세, 기타 임원으로 김한룡, 설관수, 황금찬, 배종인, 김종근, 서도명, 안경호, 이재호 등이 선출되었다.

29) 「창원신간지회 정기대회경과」, 『중외일보』, 1927. 12. 14. 그 밖에 회장 주병화, 서무부 총무 김종건, 서무부 상무 황금찬, 김태수 등이 선출된다.

30) 「창원사회운동자 망년대회성황」, 『중외일보』, 1928. 1. 3.

31) 「진해신간위원회」, 『조선일보』, 1931. 1. 31. 이 집행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주병화의 후임 문제 및 신간회 해소(解消) 문제에 대해 장시간 토의했다고 한다.

32) 「창원신간대회」, 『조선일보』, 1931. 1. 13.

하게 결정하기 곤란한 문제임으로 신중하게 고려할 문제라하여 신임집행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한 후 본무대회대표회원 선거급기타제문제도 대개 신임집행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동 사시에 폐회하였다는대(후략)

이와 같이 홍의식은 1927년 10월부터 1931년 1월까지 신간회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기간은 신간회가 설립된 시기부터 해체된 시기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홍의식은 진해청년회, 소작회 활동 등에 이어 신간회 활동을 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야학 활동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진해장학회 등 활동

1932년 진해읍내에 있는 진해장학회의 정기총회에서 홍의식은 평의원으로 선출된다.³³⁾ 1940년 열리는 진해장학회 정기총회³⁴⁾에서는 홍의식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 장학회 활동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홍의식의 딸 홍순희의 증언에 의하면 해방 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교육활동을 꾸준히 했다고 하므로 장학회와 관련하여 계속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³⁵⁾ 1939년 진해 제3소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전폐하게 되자, 학부형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조선어 과목이 폐지되는데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다시 조선어를 교육하라고 요구한다. 이 정기총회에서 홍의식은 부형회 평의원으로 선출된다.³⁶⁾ 결국 진해 제3소학교에서는 조선어 폐지에 대한 학부형 측의 요망에 따라 조선어 교육을 부활하기로 하고 1, 2, 3학년에게만 일주일에 각각 두 시간씩 교육하기로 결정³⁷⁾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41년 이후 홍의식의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 홍의식의 딸 홍순희나 손녀 홍기남에 의하면 해방 이후에는 외부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며, 『진해 지역의 항일독립운동사』의 저자인 황정덕³⁸⁾에 의하면, 중일전쟁 이후 뚜렷한 활동을 하

33) 『진해장학회 보조금을 편성 총회의 결의』, 『조선일보』, 1932. 5. 13.

이 정기총회에서 “장학회로 말하면 진해 조선인교육의 유일한 장려 기관으로 진해 각처의 야학급 유지원이 현재 유지난에 함하여 잇슴에 불구하고 오직 보교, 강습과에만 전력을 쓰고 이를 등안시 함은 장학회 정신에 배치된다 하여 예산안에 교육보조비를 편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자 이에 대하여 장시간 토의를 거듭한 결과 오백원의 보조비를 편성키로 가결(후략)” 등을 의결하고 있다.

34) 『진해장학회의 정기총회개회』, 『동아일보』, 1940. 5. 29.

35) 손녀 홍기남의 증언에 의하면, 진해여고 초창기 때 교장을 맡으라는 제의가 있었지만 거절하였다고 한다.

36) 『조선어과 부활요망 진해 제3소학교부형회 총회에서』, 『동아일보』, 1939. 5. 17.

37) 『조선어교수 부활 진해 제3소학에서』, 『조선일보』, 1939. 6. 18.

38) 2007.10.31. 전화통화로 확인.

지 못했고, 해방 이후는 이미 나이가 많은 측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VI. 결론

홍의식은 일제강점기 전 시기에 걸쳐 진해에서 다방면의 항일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홍의식은 1923년 진해청년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28년 조선인 노동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진해청년회에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923년, 1924년 진해소작회 활동을 하고 있어 진해청년회 활동과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진해지역 농민들은 소작료 이중부담 등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기 위해 1923년 6월 진해소작회를 결성하는데, 홍의식은 창립 당시부터 참가한다. 그 후 소작료 이중부담 및 일본인 지주의 횡포로 인해 진해에서는 소작쟁의가 여러 차례 벌어지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검거, 오랫동안 수감되기도 한다. 이 소작쟁의 과정에서는 홍의식의 활동이 드러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지만, 경남노농운동자 간친회, 조선노농총동맹 등에 진해소작회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볼 때 홍의식이 진해소작회의 대표로 주요 활동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홍의식은 1927년 10월 신간회 창원군지회 창립대회 개최 시 홍의식은 선전부에 선출되었으며, 1931년 제4회 정기총회에서는 임시의장으로 선출된다. 뿐만 아니라 1928년 동 지회가 주최한 전(全)창원사회운동자망년대회에서 「하구(下龜)야학교정세」에 대해 보고한 적이 있어 야학교 활동도 병행한 것을 알 수 있다. 1932년 진해장학회 활동을 하고 있고, 1939년 조선어과목 폐지에 항거하는 진해 제3소학교 부형회 평의원으로 선출된다.

그리고 1926년 6월 「소요예배설교방해행기출판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처해진 수형인 명부가 발견되었고, 『1940년 전반기 조선사상운동개황』에 수록된 「민족주의자의 주요연동」에 홍의식의 발언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홍의식의 진해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은 진실규명으로 판단된다.